

푸른 바다를 넘나든 테우

이호테우해변은 제주의 옛 해양문화인 테우를 테마로 하는 해수욕장이다. 푸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를 되살리며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태우해안로 | 제주시 이호1동 575-4 ~ 제주시 내도동 1660(약 2km)

이호해변길 | 제주시 이호1동 363 ~ 제주시 이호1동 431-1(약 0.7km)

백포동길 | 제주시 이호1동 636-2 ~ 제주시 이호1동 345(약 0.3km)

향골남길 | 제주시 이호1동 650-1 ~ 제주시 이호1동 733-1(약 0.5km)

현사길 | 제주시 이호1동 1923-1 ~ 제주시 이호1동 1803-1(약 0.5km)

덕지4길 | 제주시 이호2동 1508-1 ~ 제주시 이호2동 1228(약 1.2km)

오도길 | 제주시 이호2동 802-4 ~ 제주시 이호2동 1040-1(약 0.6km)

대동길 | 제주시 이호2동 114-3 ~ 제주시 이호2동 990-6(약 0.6km)

억삼길 | 제주시 이호2동 3 ~ 제주시 이호2동 33(약 0.7km)

테우해안로 / 이호 해변길 | 이호테우해변

테우해안로는 이호와 내도의 해안가를 지나는 길이다. 이 길에 테우해안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호마을에서 매년 제주의 전통배인 테우를 테마로 옛날 어로문화를 재현하는 축제를 열기 때문이다. 뗏목과 비슷한 모양인 테우는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배였다. 제주의 여자들이 해녀가 되어 바닷속을 드나들었다면, 남자들은 바다 위에서 어부의 생활을 했다. 테우를 타고 미역같은 해초를 걷어 옮기거나 그물을 이용해 자리돔 등을 잡았다. 옛날에는 테우를 만들 때 한라산 구상나무로 만들었는데, 구상나무가 점점 귀해지면서 삼나무를 사용했다고 한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많은 집에서 테우를 타고 바다에 나갔지만 새로운 배들이 들어오면서 테우를 이용했던 어로문화는 점차 사라졌다.



이호테우해변

이호해변길은 이호해변 동쪽의 매립지를 지나는 길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호해변길 서쪽의 모래사장은 테우를 비롯해서 옛날 어로문화에 대한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호테우해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이호테우해변은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에서 푸른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이호마을의 명소이다. 위치도 시내에서 가까운데다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야간에도 개장을 해서 더위를 식히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매년 여름이면 이곳에서 옛 어로문화를 알리기 위한 이호테우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서는 테우를 이용해 멸치를 잡는 모습을 재현해서 보여주고, 관광객들이 테우를 타서 노를 직접 저어볼 수도 있다. 테우뿐만 아니라 바다에 둥그렇게 돌을 쌓아놓고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원담체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제주의 해양문화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백포동길 / 항골남길 | 백포

백포동길은 옛날 백포라고 불리던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호해변길 동쪽 바닷가에 배가 드나들던 곳을 모래가 희다는 뜻과 포구라는 뜻을 합쳐서 백포 또는 백개라고 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이 마을에 사람이 살았는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모래가

마을을 덮쳐 마을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후 다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름이 이호(梨湖)로 바뀌었다. 이 마을은 항골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마을의 남쪽을 동서로 가로지르던 항골내의 북쪽에 있던 마을이기 때문이다. **항골남길**은 이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은 중앙마을이라고도 부른다.

현사길 / 덕지4길 | 현사마을



현사길은 현사마을의 명칭을 반영한 이름이다. 백개와 반대로 이호테우해면 남쪽에는 검은모래 마을이라는 의미의 현사마을이 있다. 현사라는 이름은 바닷가의 모래의 색이 검은색을 띠고 있어서 ‘검은모살’이라는 뜻으로 현사(玄絲)라고 불렸다. 현사마을도 백포마을처럼 하룻밤 사이에 매몰되어 마을이 없어졌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덕지물 안내판

덕지4길은 덕지물에서 따온 이름이다. 덕지물은 수량이 풍부해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사용했다고 한다. 덕지물 인근에는 유배인 이덕인의 후손인 이득춘의 묘가 있다. 이득춘은 계성군파의 입도조인 이팽형의 아들이다. 이덕인은 조선의 왕족으로 인조 때 역모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발각이 되면서 제주에 유배가 된다. 이후 이덕인은 사약을 받고 죽지만, 그의 후손인 이팽형은 제주에 살면서 후손을 남긴다. 그로부터 제주에도 전주이씨 계성군파의 맥이 이어지게 되었다.

현사마을은 덕지물이 있던 곳이라서 ‘덕지동’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현사마을 남쪽으로 이어지는

오도길 | 오도마을과 고흥진

오도길은 오도마을의 명칭에서 따온 이름이다. 오도마을은 고전적이라는 지관이 마을에 정착해서 살았다고 한다. 고전적은 이원조 목사가 당시 제주의 현황을 기록한 <탐라지>를 편찬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고흥진을 말한다. 고흥진은 고봉래로 불리기도 하는데 제주에 유배왔던 간홍 이익의 제자이다. 65세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을 하고 전적 벼슬을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고전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말년에는 이호동에 살면서 아

이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고흥진은 풍수지리에도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의술이 뛰어났던 진좌수, 점을 잘 치기로 유명했던 문곡성과 더불어 제주의 삼대 명인으로 불렸다고 한다.

대동길 / 억삼길 | 대동마을

오도마을 옆에는 대동마을이 있다. **대동길**은 대동마을을 지나는 길을 의미한다. 이호동에 있는 6개의 마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한다. 대동마을이란 이름은 마을에 경주 김씨와 광산 김씨가 정착을 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았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이 마을에는 ‘억세미지세터’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억삼길**은 이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억삼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살면서 기와집을 지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